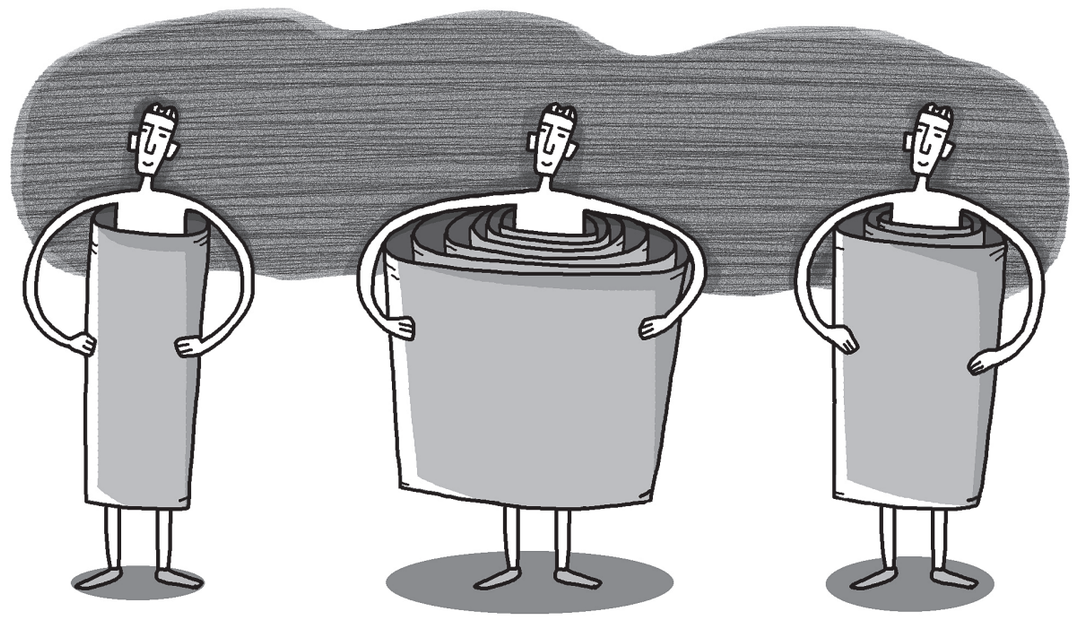
따뜻하게 둘로 보지 않는 마음, 이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그림 · 최주현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마음으로 음미해 가면서 '자기의 맛'으로서의 맛을 알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항상 겉으로 돌아가는, 기복으로 돌아가는 분들은 부처님의 속을 알 수가 없고 남의 속을 알 수가 없고, 하다못해 애들의 속까지도 몰라. 부부로 살면서도 자기 남편의 속을 모르고 자기 자식의 속을 몰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식이 돼 봐 주는, 내가 자식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서 안으로 굴려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남편이 어떡할 때 다시 한번 바꿔서 내가 남편이 되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굴림이 여러분에게 삶의 의지와 생동력 있고 보람 있는 삶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으로 항상 날뛰고, 빌고, 달라고 그러고 온통 자기 것, "자기 자기 자기" 하면서 자기가 자기로서 달라는 것, 이렇게 둘로 안다면 항상 얻으러 다녀야 하고, 항상 종을 면치 못해.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종을 면치 못함으로써 종 문서는 항상 따라다니게 마련이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 색(色)만 보고 이름만 보고 이렇게 모든 걸 해 나가는데….

어저께 어떤 어린애 하나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몸뚱이를 쥐고 아무리 이름을 부르며 불쌍하다 해도 그게 안 불쌍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걸 건지기 위해서는 이 마음 깊이 진정으로 내 아픔과 같이 내 마음으로 굴리면서 그것을 끝내, 한생각에 항상 같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 주는 것이 그 애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길을 밝혀 주는 길입니다. 몸뚱이를 붙잡고 이름을 붙잡고 아무리 말을 해 봤던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데의 그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누구나가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나도 나가면서도 '어, 그래. 너의 장래를 위해서 밝게 길을 인도하리라.' 이렇게 하고서 나갔어요. 그것이 여기에서 부모가 기른 것보다도 더 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나이 젊어서, 출가를 해 가지고 또 돌아다니게 될 그 무렵에 빨치산으로 낙인이 찍혀 가지고 집으로 연락이 갔던지 어머니가 허위단심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가 참 오래간만에 만나는 상봉이었죠. 그랬는데 오셔서 보니까 옷도 다 갈갈이 뜯어졌지마는 살도 입술도 얼굴도 이건 볼 수 없이 갈갈이 뜯어져서 피가 나고 딱정이가 떨어지고 갈라지고 이랬으니 사람을 볼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는 순간 까무러쳐서 그냥 주저앉아서 수족을 못 쓰시게 됐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거품이 나오면서 피가 흘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기에 순간 그렇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분명코 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리시죠?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만 봤지, 그 고생 고생, 말도 못 하는 고생만 봤지, 다른 거는 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되고자 해서, 내가 참인간이 된다면 어머님 무릎 앞에 다시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셈 대십시오. 사람이 언제 같이 만났다가, 뜬구름과 같이 몰렸다가 뜬구름 헤어지듯이 헤어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먼저 죽으나 나중 죽으나, 어린애 적에 죽으나 쪼금 커서 죽으나 어른이 다 돼서 죽으나 자식 죽었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저 오빠가 오시걸랑은 따라가십시오." 하고선 그냥 그 길로 가니까 손도 쳐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족은 못 쓰나 눈물은 줄줄줄줄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손으로 보따리 싸 가지고 온 걸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보따리를 가지고 가라는 줄 알고 보따리를 들고 그냥 갔습니다. 8 · 15 해방 되고 자기 딸자식, 자식이라고 오면 입히겠다고 소중히 비로드 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 벌이나 가져오셨습니다. 아주 좋은 옷입니다. 그 예전부터 해 놓으신 것을 못 주고 있다가 그때 그렇게 가져오셨나 본데, 그것을 가다가 혼인기가 있는 시골 처녀들 줘 버리고 갔습니다. 그 몸에다 그걸 입으면 뭘 합니까? 아무리 옷이 입을 게 없다 치더라도.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입산을 했고, 또 입산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입을 게 없다 하더라도 그 옷을 어디다 걸칩니까? 그래서 그냥 버리고 산모퉁이에…, 그때 좀 추운 가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엽을 딛고 가는 그 모습,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아서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당해 보지 않으면 그 마음 모를 겁니다. 그냥 성해서 버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에 그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떠나니까 팔도 이렇게 쳐들지도 못하면서 요 손끝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걸 보고 떠난 뒤에 얼마 만에 돌아가셨다는 기별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돌아가신 뒤에 한번 가 뵀습니다. 허허허…. 그런 이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몸을 잡고서 아무리 애를 써 봤던들 그건 당치도 않아, 어머니를 구하려면. 어머니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부처님의 마음도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도 역시,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고 부모를 생각하고 그러는 그 마음이, 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요.

마음으로 안으로 굴리지 않는다면 그 길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굴림에 의해서 앞날이 펴지고 밝아지지, 거죽으로 "얘야, 너는 어떡하고 어떡하고 어떡하고…." 말이 많고 그러면 이거는 똑바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오히려 삐뚜로 나가게 하는 수가 100% 될 수 있죠. 남편도 자꾸자꾸 "이것을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세상에 이렇게 해 가지고 삽니까?" 하고 그렇게 해 봤던들 오히려 그런 걸 번연히 알면서도 이것은 주장을 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파괴가 됩니다, 알면서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죠?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저 햇빛을 따뜻하게, 여름에 무덥게 아주 쨍쨍 쪼여 보십시오. 그러면 입었던 옷도 훨훨 벗어 버립니다, 원리가. 그러나 아주 강하게 찬기가 오고 모진 바람이 몰아닥칠 때는 반드시 옷을 더 껴입고 더 옹그리고 더 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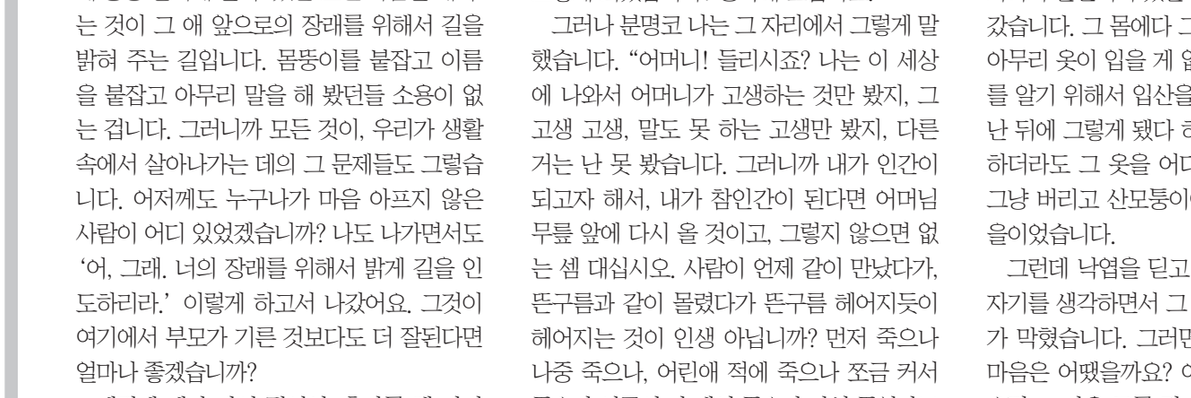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자기 한 꺼풀 한 꺼풀을 벗어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유스럽게 뛰어놀지 못합니다. 자유스럽게 살 수도 없습니다. 속박돼 있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이고, '이것이 내가 업보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가. 팔자 운명이 얼마나 이렇기에 이런가.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이런가.' 이러한 사념에 끄달리면서 그 암흑 같은 길을 걸어야만 하고, 그 걸어가는 길이 바로 자기의 밝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캄캄한 암흑 길을 걸어가니 이 몸을 벗는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낙향돼서 껌껌한 길을 또 걸어야 하는 그런 모임에 의해서 다시 인연이 돼서 또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 하나에 우리가, 세세생생의 삶에 의해서 거기에 그 인연 뿌리가, 인과 뿌리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모두가, 사람사람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 그렇고, 이 공부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부라고 할 것도 없지요.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이 전부 공부니까. 하나하나 뉘우치면서 하나하나 진화되면서 창조해 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옮겨 가면서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고정된 행도 없고, 고정된 말도 없고, 고정되게 먹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빈 그릇 그저 일렁일렁 움죽거릴 뿐입니다. 단지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도 없는 마음이 자기를 움죽거리고 갑니다. 그 마음이 선장이라면 바로 그 선장은 나침반을 놓고서 그냥 가곤 있지요.

그런데 모두 여러분은 이 색에, 물질에 착을 두고 이름에 착을 두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금강경이다 화엄경이다, 몇 독을 했다 뭐, 천배를 했다 삼천배를 했다 하지만 육신으로써, 말로써 그것을 아무리 해 봤던들 그 뜻을 몰라서,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뒷면의 그 뜻을 몰라서 한마디도 옮길 수가 없고, 남한테 옮겨 봤던

☞ 18면으로 계속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